거품 너머, 바다를 보다

현불논단



성제 정사
위덕대학교 전법원장

아침에 세수를 하다 보면 비누 거품이 풍성할수록 더 깨끗하게 씻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나 거품의 양과 세정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깨끗해지는 과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거품은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효과보다 '효과처럼 보이는 모습'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거품이 참 많다. 식당에서는 음식 맛보다 사진부터 찍고, 책은 다 읽지 못해도 책장이 가득 차 있으면 든든하다. SNS를 열면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원본을 보고, 남의 삶은 잘 편집된 하이라이트만 본다. 비교할수록 내가 초라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재산과 직함, 학벌과 명예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것이 내 존재의 전부라고 믿을 때 생긴다.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거품이 생긴다. 기대가 커지면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먼저 달려간다. 처음에는 '왜 오르지?' 하다가 계속 오르면 '조금만 사볼까?' 하고, 더 오르면 '그때 더 살걸' 후회한다. 그러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는다. 사실 거품이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다. 거품은 처음부터 거품이었다. 우리가 그걸 바위라고 믿었던 것뿐이다.

사람도 그렇다. 처음 좋아할 때는 상대가 완벽해 보인다. 말이 적으면 진중해 보이고, 말이 많으면 재미있어 보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제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상대가 변했다기보다 내가 씌워 놓았던 기대의 거품이 걷힌 경우도 많다.

우리 삶에 실제보다 화려한 거품 많아
밧줄을 뱀으로 착각한 것과 같은 전도
거품 같은 삶도 품어내는 마음 기르길

불교에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전도(顚倒)'라 한다. 어두운 곳에서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등불이다. 밝게 보면 처음부터 뱀은 없었다는 걸 알게 된다.

욕망도 그렇다. '저 차만 사면, 저 집만 가지면, 저 자리만 올라가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손에 넣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욕망은 목적지라기보다 신기루에 가깝다. 그렇다고 돈도 벌지 말고 성공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즐거움도 누리고 성공도 이루어야 한다. 다만 그것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 말자는 거다. 불교의 무상은 "다 사라지니 허무하다"는 가르침이 아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더 사랑하고 감사하라는 가르침이다.

비눗방울을 보는 아이는 곧 터질 걸 알면서도 웃는다. 잡으려고 하지 않고 즐기기 때문이다. 어른은 소유하려 해서 괴롭고, 아이는 즐겨서 행복하다. 수행도 거품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거품인 줄 알면서도 웃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이 바로 수행이다.

우리 마음은 바다와 같아야 한다. 칭찬이 생겨도 거품 하나, 비난이 생겨도 거품 하나, 돈이 생겨도 거품 하나, 잃어도 거품 하나…. 거품은 계속 생겼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다. 혹시 지금 뭔가를 너무 꽉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주먹을 꽉 쥐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 손을 펴야 다른 사람의 손도 잡고, 새로운 인연도 받아들일 수 있다.

거품은 잡는 순간 터진다. 그러나 바다는 잡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다. 우리도 거품 같은 삶에 매달리기보다,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바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서원한다.

네팔 돌발 홍수와 전기 요금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네팔의 돌발 홍수는 마치 AI가 만든 영상인 듯 느껴졌다. 어마어마한 격류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물이며, 어마어마한 바윗돌이 물살에 둥둥 떠가는 장면 모두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재난으로 인명 피해가 엄청났던 첫 번째 원인이야 빙하 붕괴에 따른 거대한 돌발 홍수다. 하지만 피해가 집중된 지역이 트레킹 명소로 유명한 랑탕 계곡으로 향하는 관문이고, 인근 카일라스산은 불교와 힌두교의 성지로 순례객과 관광객들이 집결하는 장소였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었다.

홍수라고 하면 비가 많이 내려야 하는데 보도된 사진은 더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빙하와 암반의 붕괴로 인한 연쇄 효과가 이번 돌발 홍수의 원인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빙하 붕괴의 원인을 따져가다 보면 결국 기온 상승과 만나게 된다. 그렇기에 이번 재난은 자연재해를 가장한 인재라고 보는 게 맞다. 이번에 붕괴된 빙하는 힌두쿠시 히말라야 권역에 형성된 빙하로 여기서 발원한 주요 하천이 인더스, 갠지스, 브라마푸트라, 메콩, 양쯔, 황허 등 10개에 이른다. 그리고 이 유역에 인접한 나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부터 인도, 네팔, 부탄,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에 이르는 8개 나라가 있고 20억 명쯤이 그곳에 산다. 이번처럼 거대 빙하가 무너지고 빠르게 녹으면서 사라질 물로 인해 향후 벌어질 물 부족은 결국 심각한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빙하 붕괴 따른 네팔 홍수와 집중 피해
기온 상승 원인 인재, 탄소 배출 줄여야
화력발전 비중 높은 전기료 정상화 시급

오래전부터 히말라야 빙하는 빠르게 녹고 있었다. 경고는 이미 있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단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달라져야 할 건 뭘까? 기온 상승을 늦추는 것, 더 정확히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전기다. 전 지구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올여름도 개문 냉방 영업을 하는 곳이 꽤 많았다. 전기요금이 올라도 지금처럼 전력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굳이 필요 없는 것들까지 전력을 소비하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우리나라의 발전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전력 가운데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은 고작 10% 남짓이다. 나머지 90%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화력발전소에서 온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사이트인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닷컴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용 전기 요금은 1kWh당 0.127달러로, 조사 대상 144개국 가운데 81위였다. 이탈리아(0.414달러), 독일(0.406달러), 일본(0.227달러), 미국(0.188달러)보다 쌌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다섯 번째로 전기료가 저렴했다. 전기 요금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 전기 요금 정상화는 절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전기는 한계 자원이다. 한계 자원이란 더 이상 무한정 늘리거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된 자원을 뜻한다. 전기가 필요하다고 당장 발전소를 짓는다거나 무한정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빙하도 한계 자원이다. 한 번 사라진 빙하를 되돌릴 수는 없기에.

社說

파병, 생명을 거래할 수는 없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요구와 이란의 반발 등 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분명히 세워야 할 원칙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교·통상적 이해와 맞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명을 희생해 얻어야 할 국익은 없기 때문이다.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호르무즈 파병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9월 9일 종교·노동·인권 등 601개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규탄하고 정부에 거부 입장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경 스님은 "어떤 곳에서도 국익이라는 이름이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도 9월 15일 별도의 성명을 내고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 파병 논의에 불교계 반대 입장
평화 해법 모색할 외교적 노력 절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세계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제사회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책임과 군사적 개입은 같은 말이 아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파병한다면 그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 군이 무력 충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비전투 전력이라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임무의 명칭이 장병이 감당해야 할 위험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않는다.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은 불살생이다.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폭력과 전쟁을 줄이고 평화를 만드는 것 역시 불교가 실천해야 할 자비의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해 존재한다는 연기의 이치를 설했다. 전쟁은 죽음과 상처를 낳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며, 난민과 빈곤을 양산한다. 경제와 사회, 환경에까지 그 상처가 이어진다. 또한 한 번 시작된 군사적 충돌은 당사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종교계와 노동계, 인권단체 등 각계가 파병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이 사안이 외교·안보 현안을 넘어 국민 생명과 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자비와 지혜로 갈등을 풀어가는 길을 가르친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필요한 것도 더 많은 무기와 군대가 아니라 충돌을 완화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도 분명하다. 전쟁의 위험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데 힘을 보태는 나라가 돼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의 위험을 떠안을 필요는 없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된다.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이것이 불교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가장 단순하고도 엄중한 가르침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야 한다. 생명을 거래해서 얻는 국익은 국익일 수 없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이고, 장병의 안전이며, 평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장보살 영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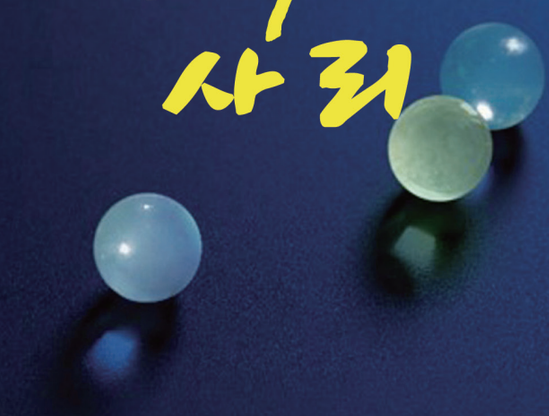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